

四面楚歌 (사면초가)

: 사방에 초(楚)나라 노랫소리. 궁지에 빠진 것을 비유하는 말이다.

진(秦)나라가 멸망한 후, 초패왕(楚霸王) 항우(項羽)와 한왕(漢王) 유방(劉邦)이 천하를 다투면서 5년 동안 싸움을 했다. 지칠 대로 지친 쌍방은 싸운 지 4년째 되던 해의 가을, 홍구(鴻溝)의 동쪽을 초나라, 서쪽을 한나라 영토로 하며, 항우가 인질로 잡고 있던 유방의 가족들을 돌려보내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휴전협정을 맺었다.

항우는 약속대로 동쪽으로 철수하기 시작했지만, 유방은 장량(張良)과 진평(陳平)의 계책에 따라 협정을 위반하고 항우를 공격했다. 항우는 해하(垓下)에 진을 치고 한군과 대치했다. 이때 항우의 군사는 10만, 한나라 군사는 명장 한신(韓信)이 이끄는 30만 대군, 유방의 20만 대군, 그리고 팽월(彭越)의 3만 군사, 그리고 경포(黥布)와 유가(劉賈)의 군사를 합쳐 약 60만 대군이었는데, 주력은 한신의 군대였다. 천하를 놓고 진검 승부를 펼치는 건곤일척(乾坤一擲)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한나라 군대는 항우의 군대를 여러 겹으로 에워쌌다. 항우의 군대는 한군에게 물샐틈없이 포위된 데다 군량마저 떨어져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어느 날 밤, 사방에서 초나라의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한나라 군사들이 펼친 심리전이었다. 항우는 초나라 군사들이 한군에게 모두 항복한 줄 알고 그만 낙담하고 말았다. 이 상황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항왕의 군대는 해하에 주둔하고 있었는데 병력은 부족했고 식량도 떨어진 상황에서 한나라 군대와 제후의 군사들에게 여러 겹으로 에워싸여 있었다. 그런데 밤에 한나라 군대가 있는 사면에서 초나라의 노래가 들려왔다. 항왕은 크게 놀라며 말했다. “한나라가 이미 초나라를 빼앗았단 말인가? 어찌 초나라 사람이 이리 많은 말인가?(項王軍壁垓下，兵少食盡，漢軍及諸侯兵圍之數重。夜聞漢軍四面皆楚歌，項王乃大驚曰，漢皆已得楚乎。是何楚人之多也.)”」

항우는 이 싸움에서 대패했고, 계속 쫓기다가 오강(烏江)에 이르러 자살하고 말았다. 이 이야기는 《사기(史記) 〈항우본기(項羽本紀)〉》에 나오는데, 사방에서 초나라 노랫소리가 들려왔다는 역사 기록에서 ‘사면초가’가 유래했다.

그런데 이런 심리전을 사용했던 유방이나 한신이나 이에 당한 초패왕 항우와 그의 부하들은 모두 남방의 초나라 출신이다. 이 초나라를 중심으로 한 남방의 노래를 초가(楚歌)라고 하는데, 감상적이고 애잔하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어 구슬프기 짝이 없다. 부모처자를 두고 고향을 떠나 오랫동안 전쟁과 항수에 시달려 온 항우의 병사들 중 구슬프고 애잔한 고향의 가락을 듣고 탈영하지 않을 사람이 몇이나 있었을까? 이 초가는 후에 한나라의 조정을 중심으로 유행하다가 나중에 부(賦)라는 문학 장르로 발전하는데, 이를 한부(漢賦)라고 한다.

鴻溝爲界(홍구위계)

:홍구(鴻溝)를 경계로 삼다. 대치 상태에 있는 쌍방이 경계선을 나누는 것을 비유하는 말이다.

전국시대를 통일했던 진시황이 사망한 후, 초(楚)나라 재건과 진(秦)나라 멸망의 기치를 높이 들었던 항우(項羽) 등 항진(抗秦) 세력에 의해 진나라가 멸망했다. 스스로 초패왕(楚霸王)이 된 항우는 팽성(彭城)을 수도로 삼고, 초회왕을 의제(義帝)로 옹립했다. 그리고 진나라를 타도하는 데 공이 큰 사람들을 제후로 봉했다. 항우는 특히 위험인물인 유방(劉邦)을 한왕(漢王)으로 봉해 오지인 파촉(巴蜀) 땅으로 몰아냈다. 천하는 일단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고, 항우가 천하를 차지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이듬해 의제가 항우의 사주를 받은 영포(英布)에게 시해를 당하자 논공행상에 불만을 품었던 제후들이 각지에서 들고일어났다. 항우가 각지의 반군들을 평정하는 사이, 유방은 관중 땅을 공략하고, 이어 56만 대군을 몰아 단숨에 팽성을 점령했다. 그러나 급보를 받고 말머리를 돌려 달려온 항우의 3만 기병에게 대패한 유방은 아버지와 아내를 적진에 남겨 둔 채 겨우 목숨만 부지하여 형양(滎陽)으로 달아나 군사를 정비하고 항우와 대치했다.

그 후 쌍방은 일진일퇴를 거듭했다. 항우의 초군은 군사적으로는 우세했지만 동정서벌하느라 왔다 갔다 하면서 장기적인 소모전을 펼친 탓에 점점 지쳐 갔고, 전쟁의 주도권은 점차 한군의 수중으로 넘어왔다.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된 유방은 이 기회에 항우에게 인질로 잡혀 있는 아버지 태공과 부인 여후를 되찾기 위해 항우와 강화 교섭을 진행했다. 강화의 조건은 홍구의 동쪽을 초나라로, 서쪽을 한나라 영토로 하며, 인질로 잡고 있는 유방의 가족들을 돌려보내 달라는 것이었다. 지칠 대로 지친 항우는 천하를 양분하고 홍구를 경계로 하여 서쪽은 한나라, 동쪽은 초나라로 하기로 한나라와 약속했다.(項王乃與漢約, 中分天下, 割鴻溝以西者爲漢, 鴻溝以東者爲楚.) 싸움을 벌인 지 4년째 되는 BC203년 가을의 일이었다. 항우는 약속을 지켜 인질로 잡고 있던 유방의 아버지와 부인을 돌려보내고 팽성을 향해 철군 길에 올랐다. 하지만 유방은 장량과 진평의 계책에 따라 약속을 지키지 않고, 말머리를 돌려 항우를 추격했다. 이듬해 유방은 한신과 팽월 등의 군사와 연합하여 해하(垓下)에서 항우의 초나라 군대와 최후의 일전을 벌여 초나라 군대를 섬멸했다. 항우는 달아나다가 오강(烏江)에 이르러 자결했고, 유방은 마침내 천하를 차지했다.

이 이야기는 《사기(史記) 〈항우본기(項羽本紀)〉》에 나오는데, 항우와 유방이 홍구를 경계선으로 삼아 천하를 양분하기로 약속했다는 말에서 ‘홍구위계’가 유래했다.

홍구는 전국시대 위혜왕(魏惠王, 재위 BC370~BC319)이 도읍을 대량(大梁)으로 옮긴 후 수리공정을 위해 뚫던, 황하(黃河)와 회하(淮河)를 연결하는 운하로, 지금은 하남성 중모(中牟)에 그 흔적만 남아 있다. 위나라는 홍구의 물을 이용한 수공을 당해 진(秦)나라에게 멸망을 당했다. 홍구는 또한 항우와 유방이 천하를 놓고 쟁패하면서 국경선으로 삼았던 곳이다. 후에 쌍방이 휴전을 했지만, 유방은 휴전 협약을 깨고 홍구를 건너 결국은 항우를 멸망시켰다. 한국 장기에는 없지만 중국 장기판에는 한나라와 초나라의 경계선이 가운데 있는데, 그것이 바로 홍구이다. 그리고 중국 속담에 더 이상 물러설 수 없고 전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가리키는 ‘강을 건너 졸때기(過了河的卒子)’란 말이 있는데, 여기의 강도 홍구다.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다는 뜻으로 쓰이는 ‘루비콘 강을 건넜다.’라는 말을 중국에서는 ‘홍구를 건넜다.’고 표현한다.

乾坤一擲(건곤일척)

: 하늘과 땅을 던지다. 승패와 흥망을 걸고 마지막으로 결행하는 단판 승부를 비유한 말이다.

용도 지치고 범도 피곤하여 강과 들을 나누니
억만창생의 목숨이 보전되었네
누가 왕에게 권해 말머리 돌려
실로 일척에 건곤을 걸게 했는가

龍疲虎困割川原
億萬蒼生性命存
誰勸君王回馬首
眞成一擲賭乾坤

- 한유(韓愈) 〈과홍구(過鴻溝)〉

당(唐)나라의 문인이자 당송팔대가의 한 사람인 한유(韓愈)가 옛날 항우(項羽)와 유방(劉邦)이 천하를 놓고 싸우면서 경계선으로 삼았던 홍구(鴻溝)를 지나다가 이 시를 지었는데, 마지막 구절에서 ‘건곤일척’이 유래했다.

홍구는 전국시대 위혜왕(魏惠王, 재위 BC370~BC319)이 도읍을 대량으로 옮긴 후 수리 공정을 위해 팠던, 황하(黃河)와 회하(淮河)를 연결하는 운하로, 지금은 하남성 중모(中牟)에 그 흔적만 남아 있다. 위나라는 홍구의 물을 이용한 수공을 받고 진(秦)나라에 멸망을 당했다. 홍구는 또한 항우와 유방이 천하를 놓고 쟁패하면서 국경선으로 삼았던 곳이다. 후에 쌍방이 휴전을 했지만 유방은 휴전 협약을 깨고 홍구를 건너 결국은 항우를 멸망시켰다. 한국 장기에는 없지만 중국 장기판에 있는 한(漢)나라와 초(楚)나라의 경계선인 가운데의 강이 바로 홍구이다. 그리고 중국 속담에 ‘더 이상 물러설 수 없고 전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가리킨 ‘강을 건너 졸때기(過了河的卒子)’란 말이 있는데, 여기의 강도 바로 홍구이다.

한유는 지난날 유방을 보필하여 유방으로 하여금 천하를 차지하게 만든 장량(張良)과 진평(陳平)의 공적을 생각하며 이 시를 지었는데, 한유는 이 당시의 상황이 실로 천하를 건 일대 도박이었다고 생각했다. 당시의 상황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전국시대를 통일했던 진시황이 사망한 후, 초나라를 재건하고 진나라 멸망의 기치를 높이 들었던 항우 등 항진(抗秦) 세력에 의해 진나라가 멸망했다. 스스로 초패왕(楚霸王)이 된 항우는 팽성(彭城)을 수도로 삼고, 초희왕을 의제(義帝)로 옹립했다. 그리고 진나라를 타도하는 데 공이 큰 사람들을 제후로 봉했다. 항우는 특히 위험인물인 유방을 한왕(漢王)으로 봉해 오지인 파촉(巴蜀) 땅으로 몰아냈다. 천하는 일단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고, 항우가 천하를 차지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이듬해 의제가 항우의 사주를 받은 영포(英布)에게 시해를 당하자 논공행상에 불만을 품었던 제후들이 각지에서 들고일어났다. 항우가 각지의 반군들을 평정하는 사이, 유방은 관중 땅을 공략하고,

이어 56만 대군을 몰아 단숨에 팽성을 점령했다. 그러나 급보를 받고 말머리를 돌려 달려온 항우의 3만 기병에게 대패한 유방은 아버지와 아내를 적진에 남겨 둔 채, 겨우 목숨만 부지하여 형양(滎陽)으로 달아나 군사를 정비하고 항우와 대치했다. 그 후 쌍방은 일진일퇴를 거듭하다가 마침내 홍구를 경계로 천하를 양분하고 휴전을 하기로 했다. 항우는 약속을 지켜 유방의 아버지와 부인을 돌려보내고 팽성을 향해 철군 길에 올랐다. 하지만 유방은 장량과 진평의 계책에 따라, 약속을 지키지 않고 말머리를 돌려 항우를 추격했다. 이듬해 유방은 한신과 팽월 등의 군사와 연합하여 해하(垓下)에서 항우의 초나라 군대와 최후의 일전을 벌여 초나라 군대를 섬멸했다. 항우는 달아나다가 오강(烏江)에 이르러 자결했고, 유방은 마침내 천하를 차지했다. 이 이야기는 《사기(史記) 〈항우본기(項羽本紀)〉》에 나온다.

力拔山氣蓋世 (역발산기개세)

: 힘은 산을 뽑을 만하고, 기개는 세상을 덮을 만하다. 용기와 기상이 월등하게 뛰어난 것을 비유하는 말이다.

진(秦)나라가 멸망한 후, 초패왕 항우(項羽)와 한왕 유방(劉邦)이 천하를 다투면서 5년 동안 싸움을 했다. 지칠 대로 지친 쌍방은 싸운 지 4년째 되는 해의 가을, 홍구(鴻溝)의 동쪽을 초나라의 영토로, 서쪽을 한나라의 영토로 하며, 항우가 인질로 잡고 있던 유방의 가족들을 돌려보내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휴전협정을 맺었다. 항우는 약속대로 동쪽으로 철수하기 시작했지만, 유방은 장량(張良)과 진평(陳平)의 계책에 따라 협정을 위반하고 항우를 공격했다. 항우는 해하(垓下)에 진을 치고 한군과 대치했다. 이때 항우의 군사는 10만, 한나라 군사는 명장 한신(韓信)이 이끄는 30만 대군, 유방의 20만 대군, 팽월(彭越)의 3만 군사, 그리고 경포(黥布)와 유가(劉賈)의 군사를 합쳐 약 60만 대군이었는데, 주력은 한신의 군대였다. 천하를 놓고 진검승부를 펼치는 건곤일척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한나라 군대는 항우의 군대를 여러 겹으로 에워쌌다. 항우의 군대는 한군에 물샐틈없이 포위된 데다 군량마저 떨어져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어느 날 밤, 사방에서 초나라의 노랫소리(四面楚歌)가 들려왔다. 한나라 군사들이 펼친 심리전이었다. 항우는 초나라 군사들이 한군에게 모두 항복한 줄 알고 그만 낙담하고 말았다. 항우는 자신의 운이 다했음을 직감했는지 비탄에 젖어 노래를 불렀다. 옆에는 항상 그를 따르던 사랑하는 여인 우미인(虞美人)과 명마 추(騅)가 있었다.

힘은 산을 뽑고 기개는 세상을 덮을 만한데
때가 불리함이며 추도 달리지 않누나
추마저 달리지 않으니 어찌할거나
우여, 우여, 너를 어찌해야 할꼬

力拔山兮氣蓋世
時不利兮騅不逝
騅不逝兮可奈何
虞兮虞兮奈若何

궁지에 처한 항우는 더 이상 생각할 겨를도 없이 8백 명의 기병을 인솔하고 포위망을 뚫었다. 하지만 회하(淮河)를 건넌 후 남은 군사는 백여 명뿐이었다. 이들은 음릉(陰陵)에 이르러 그만 길을 잃고 말았는데, 한 농민에게 속아 왼쪽 길로 도주하다가 늪을 만나 시간을 허비하고, 다시 되돌아와 동성(東城)에 이르렀을 때는 고작 28명이 남아 있었고, 수천의 추격군과 마주치게 된다. 항우는 28명을 4대로 나누어 돌진하여 수없이 많은 한군을 사살하고 다시 뭉쳐 포위망을 뚫고 계속 동쪽으로 도주했다. 이 전투가 바로 유명한 동성쾌전(東城快戰)인데, 여기에서 항우는 부하를 단 2명 잃었을 뿐이다. 치열한 전투 끝에 오강(烏江)에 이른 사람은 고작 26명. 오강의 정장(亭長)이 배를 대 놓고 말했다. “강동이 작다고는 하지만 아직 천 리 땅이 있고 몇 십만 백성이 있으니 왕업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대왕께서는 빨리 강을 건너십시오. 지금 신만이 배를 가지고 있으니 한나라 군대가 와도 강을 건너지 못할 것입니다.” 항우가 웃으며 말했다. “하늘이 나를 버렸는데 내가 어떻게 강을 건너겠는가. 또한 내가 강동의

자제 8천 명과 함께 강을 건너 서쪽으로 갔었는데, 지금 한 사람도 돌아가지 못한다. 설령 강동의 부형들이 나를 동정하여 왕으로 삼아 준다 한들 내가 무슨 면목으로 그들을 볼 수 있겠는가. 설령 그들이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내 마음이 부끄럽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하고 정장에게 자기가 타던 말을 선물했다. 항우의 부하 26명도 모두 말에서 내려 한군과 또 한바탕의 치열한 접전을 벌여 항우 혼자서 만도 백여 명의 한군을 사살했다. 치열한 접전 중에 항우는 옛 부하였던 한의 장군 여마동(呂馬童)을 발견하고, 천 금의 상과 1만 호의 봉읍이 걸린 자신의 수급을 바쳐 공을 세우라고 소리쳐 말하고 자결하고 만다. 이로써 일세영웅 항우는 장렬하고도 처절한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다. 항우의 나이 31세 때였다. 왕예(王翳)라는 인물이 항우의 목을 베어 가졌고, 여마동 등 4인은 항우의 사지를 갈라 가져갔다. 이들은 같은 날 후(侯)에 봉해졌다.

이 이야기는 《사기(史記) 〈항우본기(項羽本紀)〉》에 나오는데, 항우의 노래 〈해하가(垓下歌)〉에서 ‘역발산기개세’가 유래했다.

捲土重來(권토중래)

: 땅을 맡아 다시 오다. 한 번 패했다가 세력을 회복하여 다시 쳐들어오다. 실패 후에 재기하는 것을 비유하는 말이다. ‘권토(捲土)’란 부대가 땅을 달려 전진할 때 일으키는 흙먼지가 멀리서 보면 마치 땅을 말면서 달리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을 말한다.

초패왕 항우(項羽)와 한왕 유방(劉邦)이 천하를 놓고 다투었던 초한 전쟁은 5년간 지속되다가 유방의 승리로 끝을 맺었다. 전쟁 막바지에 쌍방은 휴전 협정을 맺었는데, 유방이 협정을 위반하고 항우를 공격했다. 항우는 해하(垓下)에서 유방의 한나라 군대에 포위되었는데, 밤에 사방에서 초나라의 노랫소리가 들려오는 바람에 이미 싸움에 진 것으로 착각하고 낙담하고 말았다. 궁지에 처한 항우는 더 이상 생각할 겨를도 없이 800명의 기병을 인솔하고 포위망을 뚫었다. 하지만 회하를 건넌 후 남은 군사는 100여 명뿐이었다. 이들은 음릉(陰陵)에 이르러 그만 길을 잃고 말았는데, 한 농민에게 속아 왼쪽 길로 도주하다가 늪을 만나 시간을 허비하고, 다시 되돌아와 동성(東城)에 이르렀을 때는 고작 28명이 남아 있었고, 수천의 추격군과 맞닥뜨리게 된다. 항우는 이 28명을 4대로 나누어 돌진하여 수없이 많은 한군을 사살하고 다시 뭉쳐 포위망을 뚫고 계속 동쪽으로 도주했다. 이 전투가 바로 유명한 동성쾌전(東城快戰)인데, 여기에서 항우의 부하들은 단 2명이 죽었을 뿐이다.

치열한 전투 끝에 오강(烏江)에 이른 사람은 고작 26명. 오강의 정장(亭長)이 배를 대놓고 말했다. “강동이 작다고는 하지만 아직 천 리 땅이 있고 몇 십만 백성이 있으니 왕업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대왕께서는 빨리 강을 건너십시오. 지금 신만이 배를 가지고 있으니 한나라 군대가 와도 강을 건너지 못할 것입니다.” 항우가 웃으며 말했다. “하늘이 나를 버렸는데 내가 어떻게 강을 건너겠는가. 또한 내가 강동의 자제 8천 명과 함께 강을 건너 서쪽으로 갔었는데 지금 한 사람도 돌아가지 못한다. 설령 강동의 부형들이 나를 동정하여 왕으로 삼아 준다 한들 내가 무슨 면목으로 그들을 볼 수 있겠는가. 설령 그들이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내 마음에 부끄럽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하고 정장에게 자기가 타던 말을 선물했다.

항우의 부하 26명도 모두 말에서 내려 한군과 또 한바탕 치열한 접전을 벌여 항우 혼자서만도 100여 명의 한군을 사살했다. 치열한 접전 중에 항우는 옛 부하였던 한의 장군 여마동(呂馬童)을 발견하고, 천금의 상과 1만 호의 봉읍이 걸린 자신의 수급(首級)을 바쳐 공을 세우라고 소리쳐 말하고 자결하고 만다. 이로써 일세영웅 항우는 장렬하고도 처절한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다. 항우의 나이 31세 때였다. 왕예(王翳)라는 인물이 항우의 목을 베어 가졌고, 여마동 등 4인은 항우의 사지를 갈라 가져갔다. 이들은 같은 날 후(侯)에 봉해졌다. 이 이야기는 《사기(史記) 〈항우본기(項羽本紀)〉》에 나온다.

항우의 초나라는 모두 9개의 군(郡)을 관할했는데, 항우가 패전을 하고 자살하기 직전까지도 5개의 군은 여전히 항우의 수중에 남아 있었다. 하여 후인들 중에는 항우가 오강을 건너 재기를 노렸어야 했다며 안타까워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강을 건넌어도 별 희망이 없었다고 생각한 사람도 있다. 당나라의 시인 두목(杜牧)이 전자에 해당하는데, 그는 오강을 유람하다가 〈오강정(烏江亭)〉이란 시를 지어 일세의 영웅 항우가 오강을 건너 강동으로 가지 않고 자결한 것을 아쉬워하고 탄식해 마지않았다.

이기고 지는 것은 병가의 일로 뜻대로 되지 않는 것
수치를 끌어안고 부끄러움을 견디는 것이 대장부지
강동의 자제들 뛰어난 이 많았으니
땅을 말아 다시 올 수 있었을지 어찌 알겠소

勝敗兵家事不期
包羞忍耻是男兒
江東子弟多才俊
捲土重來未可知

두목의 이 시에서 ‘권토중래’가 유래했다. 후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는 송나라의 문인으로 당송팔대가의 한 사람인 왕안석(王安石)을 들 수 있다. 그 역시 〈오강정〉이라는 제목의 시를 남겼는데, 두목과는 상반된 관점을 가지고 있다.

수많은 싸움에 지친 장사들의 슬픔이여
중원의 싸움에서 패하고 나니 세를 회복하기 어려워라
지금 강동의 자제들이 살아 있다고 해도
대왕과 더불어 땅을 말아 오려고 하겠소?

百戰疲勞壯士哀
中原一敗勢難回
江東子弟今雖在
肯與君王捲土來

오강정은 안휘성 화현(和縣) 동북의 오강포(烏江浦)로, 바로 항우가 자결한 장소이다. ‘정(亭)’이란 진한(秦漢) 시대의 말단 행정 구역으로, 10리에 하나씩 설치되었고, 이의 장을 정장이라 했다. 한고조 유방도 정장 출신이었다.

강동은 장강의 동쪽 지역을 말한다. 장강은 대체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른다. 그래서 큰 강이 동쪽으로 흘러간다는 뜻의 ‘대강동거(大江東去)’라고 하며, 일반적으로는 강남, 강북이란 명칭을 쓴다. 그런데 강소성(江蘇省)의 남경(南京)에서 무호(蕪湖) 사이에서는 물길이 북동으로 방향을 틀어 흐른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강의 동쪽이라는 뜻의 ‘강동’, 서쪽이라는 뜻의 ‘강서’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